

## 유학체험작문

고려대학교 사예진

일본에 온 것이 엇그제 같은데, 눈 깜짝할 사이에 한 학기가 지났습니다. 초반에는 각종 생활용품을 갖추고, 연금 면제나 건강보험료 등 여러 서류 작업을 하느라 힘들었지만, 한국과 크게 다른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익숙해지고 나니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.

학기가 시작되면 흐름을 포함해 8 개의 수업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, 제가 들었던 수업을 소개하겠습니다. 일본어연습 3 에서는 일상생활이나 일본 사회에 대한 것을 배우고, 여러 번의 발표를 통해서 다양한 나라에서 온 친구들의 의견이나 문화 차이 등을 알 수 있었습니다. 일본어연습 4 에서는 오차대 학생과 교류하는 이벤트를 직접 기획하고 개최하는 귀중한 경험을 하였습니다. 일본어연습 5 는 학문적인 발표와 그를 위한 준비과정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었습니다. 일본사정연습 3 에서는 자신의 커리어와 일본 취업 등에 대해 배웠고, 일본사정연습 4 에서는 일본 내의 차별 등 사회문제에 대해서 토론과 발표를 하였습니다.

그 밖에 제가 들은 전공 수업은 일본역사개론과 일본문학개론인데,

저처럼 일본사를 일본어로 제대로 공부해 본 적이 없으면 역사 수업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. 일본 문학은 지식이 얕음에도 불구하고 재미있게 들었고, 많이 배웠습니다.

수업 외에는, 학교 서클에 참여했습니다. 미도리카이라는 합창단인데, 오차대와 도쿄대, 일본여대 중심의 합동 서클입니다. 다양한 일본 학생들과 교류하면서 활동할 수 있어서 즐거웠고, 일본어가 많이 늘 수 있었습니다. 매주 있는 자유 참가 연습뿐만 아니라 다른 서클과의 조인트 콘서트, 합숙, 학교 축제, 식사회 등 많은 이벤트가 있는 서클이기 때문에 일본 대학의 다양한 서클 활동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.

또 오차대는 유학생 대상으로 많은 체험 활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예를 들면 가부키 교실, 꽃꽂이, 다도, 유카타 및 기모노 체험 등이 있습니다. 평일 수업이 있는 시간에 진행되는지라 아쉽게도 이번 학기에는 아쉽게도 가부키 교실밖에 참여하지 못했지만, 다음 학기에는 더 많이 참여하고 싶습니다.

일단 교환학생으로 오면 생각보다 수업과 과제로 바쁘기 때문에 잘 챙기면서 틈날 때마다 많이 돌아다니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특히 한 학기 유학하신 분들은 눈 깜짝 할 새에 시간이 지나버리니 미리 여행

계획도 잘 생각해서 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

마지막으로, 그동안 많이 신세졌던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. 언제나 친절하게 대응해주신 기숙사 관리인분들과 국제과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. 또, 유학생 수업을 정성으로 지도해주신 하기와라 선생님, 니시자카 선생님, 왕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. 지도교수이셨던 모리야마 선생님, 항상 따뜻한 코멘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학기도 잘 부탁드립니다.